



프랑소와 제구

- 브뤼셀 전략 디자인 기획국장,
- 이탈리아 폴리테크니코 디 밀라노, 벨기에 라 캄브르 브뤼셀 방문교수

프랑소와 제구는 브뤼셀을 거점으로 공동 디자인 모델과 신제품 서비스 체계 정의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20년째 전략적 디자인 모델 상담을 안출, 관리하고 있다. 그는 밀라노의 폴리테크니코 디자인 학부, 브뤼셀의 라 캄브르 디자인 학교의 방문교수로 재직 중이며, 유럽의 다양한 디자인, 식품 기술 및 제약 학교들과 합작한다.

전략적 디자인 모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활동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사회혁신성, 서비스 디자인, 증가된 환경, 노인 친화적 디자인, 제약 제품들의 유연성과 안전성, 식품의 혁신성. 그는 공동 디자인을 위한 연구와 방법론의 발전을 위해 www.solutioning-design.net 네트워크를 시작한다. 그는 지속가능한 해결안들의 출현, 제품-서비스 체계 디자인, 중소기업의 혁신적 절차, 증가하는 일터 공간의 영향력을 조사하는 EU 연구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다.

프랑소와 제구는 에지오 만지니와 함께 SEP(Sustainable Everyday Project) 온라인 포럼을 공동 조직한다. (www.sustainable-everyday.net). SEP는 DESIS 네트워크(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 www.design-network.org)를 발의하고, 국가 환경 프로그램 연합을 위한 몇 가지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지속가능한 생활 양식에 대한 영국가적 관찰 연구, 개발도상국에서의 사회혁신과 지속가능한 생활 양식 조사를 위한 창의적 공동체, SEE, 지속가능한 매일의 탐구를 위한 국제 디자인 학교 프로젝트 창고 등이다.

François JÉGOU

- Director of Strategic Design Scenarios Brussels
- Visiting professor at Politecnico di Milano, Italy and La Cambre Brussels, Belgium

François Jégou creates and manages for 20 year the consultancy Strategic Design Scenarios, based in Brussels specialising in co-designing scenarios and new product-service system definition. He teaches as visiting professor in the Faculty of Design of the Politecnico in Milan, La Cambre school of design, Brussels and collaborates in different design, food engineer and pharmaceutical schools in Europe.

Strategic Design Scenarios is active in various fields of research including: design for sustainability, social innovation, service design, augmented environments, senior friendly design, compliance and security of pharmaceutical products, innovation in food products. He initiates www.solutioning-design.net network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ethodologies for co-design of scenarios.

He is involved in EU research projects investigating the emergence of sustainable solutions, the design of product-service systems, the innovation proces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impact of augmented workspaces...

François Jégou co-organises with Ezio Manzini the Sustainable Everyday Project (SEP) web platform (www.sustainable-everyday.net). SEP contributes to emergence of the DESIS network (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 www.design-network.org) and is involved in several projects for the United Nation Environment Programme such as the Global Survey for Sustainable Lifestyles; Creative Communities for Sustainable Lifestyles investigation of social innovations in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SEE... the international design schools project repository for Sustainable Everyday Explorations.

사회 혁신에서 협력 서비스까지
지속가능한 생활의 시험적 시나리오

From Social Innovations to Collaborative Services
A Tentative Scenario of Sustainable Living

수년간의 상대적인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후, 우리의 산업화된 사회는 갑자기 기후 변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깊이 의식하게 된 듯 보인다. “무탄소”와 에너지 절감은 지금 이 순간 주도적 발의안을 끌어내는 촉매제가 된 듯하다. 환경에 대한 의식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을 만큼 자라나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규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향후 10년간의 환경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는 관계 없이, 꿈 같은 소비 사회의 세계가 (과연 꿈이라고 할 수나 있다면) 세계적인 규모에서 생존해 나가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좀더 심층적인 추세는 소모적인 일상 활동들을 바꾸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과, 더욱 자가 충족적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이란 무엇인가? 일상 궤도의 어떤 부분들을 바꿔보는 것에 동의한다면 우리의 일상 생활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우리 기존 생활의 표준을 낮추는 일 없이 발생하는 충동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연구 보고 결과들은 물질적 부의 축적과 인구의 행복 지표가 점점 어긋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이 더 커지는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큰 만족감을 안겨 주게 될까? 이 글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에 대해 보고자, ‘협력 서비스 모델’이라는 새로운 일상 생활의 형태를 짚어볼 것이다.

“요청하면 자동차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하기”, “이웃간 공구 상세대여 체계”, “공동 재봉 작업실”, “가정 레스토랑”, “물품 교환 사용자들 간의 배송 서비스”... 이 모델은 우리가 협력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 다시 말해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얻고 있는 세대 개인들

의 더욱 폭넓은 참여에 기대고 있는, 체계화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는 물론,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고도의 협력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 가설에서 ‘협력 서비스 모델’은 지역 협력, 상호 원조, 공동 사용이라는 방법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제품과 생활 공간의 측면에서 개인별 필요량을 증대하게 감축할 수 있으며, 또 설비 사용을 극대화하고 이동 거리를 단축시키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일상이 환경에 가하는 파괴를 어떻게 줄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이웃간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나눔, 교환, 참여 활동에 기반을 둔 단체들의 유포가 어떻게 개인들 간의 사회적 짜임새를 재생해 주고, 가까운 관계를 복구해 주며, 의미 있는 유대감을 창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단초의 제공이기도 하다.

협력 서비스의 모델은 모자이크의 형태를 취한다. 그것은 개인들이 자기가 처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의 구조 내로 영입한 특정 다수의 지역적 변화들에 기반하고 있다. 이 모델링은 시각적으로 한눈에 내려다 보게 되는 투영물이 아니라, 오히려 단일한 해결책들의 총계에 가깝다. 이 총계는 바로 한 톨씩 모아졌을 때, 사회적 짜임 내에 유포된 조직체에 비견할 만한 정신과 함께 활발한 행복감을 발휘하므로, 최종 결과는 각자 자기가 이득을 얻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개인별 참여의 산물인 것이다.

After years of relative indifference, our industrialised societies suddenly seem to be preoccupied with the risks of climate change. “Zero carbon” and energy reductions seems to be at the moment the catalysts for initiatives. Environmental awareness is reaching the decision makers and the citizen. However, identifying the problem does not mean finding a solution... A growing majority of people now believe that the dream world of a consumer society (if indeed one can speak of a dream) is not viable on a global scale, regardless of the progress of green technologies in the coming decades. A more in-depth trend is acknowledging the necessity of shifting unsustainable daily practices and rethinking new and more sustainable ways of living. But what is a sustainable way of living? What will our daily lives become if we agree to change some of our routines? How do we reduce our impact without lowering our living standards? Observations show that growing material wealth and levels of population satisfaction are increasingly uncoupled. Could the pursuit of more sustainable lifestyles also lead to better quality and more satisfaction? In this article we attempt to answer some of these questions by shaping an new scenario of daily living: the scenario of Collaborative Services.

“Car-sharing on demand”, “micro-leasing system for tools between neighbours”, “shared sewing studio”, “home restaurant”, “delivery service between users who exchange goods”... The scenario is based on what we called collaborative services, in other words, structured reliable services that rely on a greater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in the generation of the service they benefit from as well as a higher collaboration amongst themselves. From this hypothesis, the Scenario of Collaborative Services indicates how, through local collaboration,

mutual assistance, shared use we can reduce significantly each individual’s needs in terms of products and living space and optimize the use of equipment, reduce travel distances and, finally, lessen the impact of our daily lives on the environment. The scenario also gives an idea of how the diffusion of organisations based on sharing, exchange, and participation on a neighbourhood scale can also regenerate the social fabric, restore relations of proximity and create meaningful bonds between individuals.

The scenario of Collaborative Services is shaped like a mosaic: it is based on a multitude of specific local changes adopted by individuals into the organisation of their daily lives to deal with problems that they encounter. The scenario is not the projection of a top-down vision, but rather a sum of unitary solutions, which, together, reflect a comparable spirit of enterprise that is diffused within the social fabric, and also a sense of active wellbeing so that the result is a product of each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the solution that she or he benefits from.

I. 사회혁신의 성립

모델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어디서 이러한 협력 서비스가 유래해 왔으며 또 어떻게 이 모델이 구조화되었는지를 설명해 보자.

우리의 일상 생활을 들여다 보면, 에너지와 물질들을 소비하고 오염을 일으키는 소모적 행위들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지만 좀더 정확히 관찰해 보면 주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흐름 또한 보인다. 바로 지역 자원과 기술에 기반한 생산 활동, 건강하고 자연적인 형태의 영양 공급,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어린이와 노인 돌보기 서비스, 새로운 교환 형태, 자가용 단일 문화를 대체할 대안적인 이동 체계, 도시의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화의 진척,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을 직접 연결하는 네트워크 등이다. 이러한 해결안들은 목표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와 조직의 형태 찾기가 가능한, 개별적으로 창의성이 뛰어나고 진취적인 사람들의 모임에 의한 행동의 결과다. 이러한 경우들은 제대로 안착한 사회혁신을 넘어서 일상의 지속가능함을 향한 발전에 맞추어 가면서 점차 나타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델들을 보여준다.

2003년부터, 우리는 디자인 학교들과의 협력 하에 유럽을 시초로 브라질, 중국, 인도,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사회혁신의 형태들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일련의 연구 프로젝트¹를 시작했다. 조사 절차는, 사회적 혁신 속에서 지속가능한 생활 양식을 향한 유망한 신호들을 감지하는 “안테나” 역할을 디자인어들이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진행되었다. 30개가 넘는 디자인 학교와 대학의 학생들에게 그

들이 행할 인터뷰, 사진 촬영,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사회혁신의 사례들을 찾고 문서화하고 온라인 공간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각자의 조사 도구 모음이 제공되었다. 세계 전반에 걸쳐 250개가 넘는 사례들이 수집되고 분석되었다. 이렇게 사회학적인 접근은 인식된 사례들을 장려하고 참여하는 대상이나 단체들의 동기와 프로필을 더 깊이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다. 환경 충들을 줄이고 사회적 친목을 부활시키는 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걸러내는 질적 평가가 진행되었다. 각 종류의 해결안들이 좀더 많은 예비 사용자들에게 더욱 쉽게 보급될 수 있도록, 고칠 만한 보완점들도 제시되었다. 최종 결과물로서 개선된 해결안은, 일상에서의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지속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내고, 또 이에 관련한 사회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고도의 시각적 판형이 제시되었다.

1. EMUDE 2003-2006 (Emerging Users Demands for Sustainable Solutions: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위한 사용자 수요의 증가) 제품별 지원 작업 우선순위 3 - NWP 연구 분야: “사용자 인식”의 증진, 새로운 생산 공정 및 장치, 산업 시스템과 제품 및 서비스 생명 주기의 최적화.

SEP (Sustainable Everyday Project: 지속 가능한 매일 프로젝트) www.sustainable-everyday.net

CCSL 2007-2008 (Creative Communities for Sustainable Lifestyles: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위한 창조적 지역 사회)와 CCSL Africa 2008-2009, 스웨덴 환경부가 지속 가능한 소비의 시대(Decade of Sustainable Consumption) 운동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Sustainable Lifestyles) 캠페인에 관하여 마라케시 사업단(Marrakech Task Force)에 의해 지원받은 연구 프로젝트. 유엔 환경 프로그램(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과 유엔 경제 및 사회 업무 부서(UN 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공동 제작.

DESIS 네트워크 (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사회적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www.design-network.org

I. Building Upon Social Innovation...

Before presenting the scenario we will explain where these collaborative services are coming from and how the scenario is structured.

If we look at our daily living, we see everywhere unsustainable practices consuming energy, materials and producing pollution... But if we observed more accurately, we can also see emerging new practices alternative to the mainstream: i.e. *production activities based on local resources and skills; healthy, natural forms of nutrition; self-managed services for the care of children and the elderly; new forms of exchange; alternative mobility systems to replace the monoculture of individual cars; socialising initiatives to bring cities to life; networks linking consumers directly with producers...* These solutions are the result of actions by groups of particularly inventive, enterprising people who have been able to identify objectives and find suitable tools and organisational forms for achieving them. More than niche social innovations, these cases reveal potential emerging models for a daily life more in line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Since 2003, we started a series of research projects¹ focused on the investigation of these forms of social innovations in collaboration with design schools first in Europe and later in Brazil, China, India and Africa. The process of the research was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designers could play the role of “antennas” detecting through diffused social innovation, promising signals towards sustainable ways of living. Students from more than 30 design schools and universities provided with an investigation toolkit supporting them in making

1. EMUDE 2003-2006 (Emerging Users Demands for Sustainable Solutions) Specific Support Actions Priority 3 – NMP research area: Increasing the “user awareness”, New Production Processes and Devices, Optimising the life-cycle of industrial systems, products and services.

SEP (Sustainable Everyday Project) www.sustainable-everyday.net
































CCSL 2007-2008 (Creative Communities for Sustainable Lifestyles) and CCSL Africa 2008-2009, research project funded by the Marrakech Task Force on Sustainable Lifestyles from the Swedish Ministry of Environment in the framework of the Decade of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romoted by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and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DESIS network (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www.design-network.org

interviews, taking pictures, analysing the collected material and posting it on-line, where involved in looking for and documenting cases of social innovations. More than 250 cases throughout the world were collected and analysed. Sociological approaches allow to better understand the motivations and to identify profiles of the subjects or communities promoting and participating to the identified cases. A qualitative assessment was conducted in order to filter down and reinforce cases with the highest potential to both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regenerate the social fabric. Possible improvements were suggest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access to each type of solutions, enlarge the number of their potential users and support their dissemination. Finally the resulting improved solutions were presented into a highly visual format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social conversation about what more sustainable everyday life could be and to foster related social change.

프랑스와 제구
사회 혁신에서 협력까지

사회 혁신에서 협력까지

	Nathalie	Jarkko	Erek	Mila	Hamed	Joseph	Veronique	Elena
								
가족 서비스	Family Family Like Service							
걷기 버스								
가정 세탁소								
소형 탁아소								
가족 포장메뉴								
확산형 가정	Extended Home							
다수 사용자 세탁소								
집단 공간								
동거 주택								
자동차 카풀								
공동체 주거	Community Housing							
파티장								
열린 연장소								
빨래 식당								
어린이 집								
선택적 공동체	Elective Communities							
이웃집 도서관								
어린이옷 물려입기 체인								
액티브 쇼핑 목록								
재생지 책								
서비스 클럽	Service Club							
쇼핑 클럽								
나무 작업실								
녹색 정원 가꾸기								
중고 작업실								
직접 연결망 조직	Direct Network Access							
지방 시장								
전원식단 예약								
생산 시간 공유								
온라인 쇼핑물								

앞의 도표가 보여주듯, 유럽에서 발달한 협력 서비스의 결과 모델은 세 가지 요소의 혼합에 기반해 있다.

- 관찰된 사회혁신의 가장 유망한 사례들은, 서비스가 초창기의 특정 발생 구역을 넘어서 범 조직 된다는 점에서 공통되거나 되풀이되는 양식을 보여준다. 조직의 형태는 범주 별로 정리될 수 있다. 이 분류는 도표의 Y축에 나타나 있다.
- 비록 그 사용자들 모두 동일한 의지와 결심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이 모델은 창의적인 공동체 가까이에 있는 사용자들을 포섭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도표의 X축에는 8명의 유망한 사용자들이 소개되어 있다.
- 다양한 조직 형태라는 한 축과 유망한 사용자들이라는 다른 축의 교차를 통해 드러난 협력 서비스의 표본은,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례들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에게 더욱 접근하기 쉽도록 가능한 발전과 적합성을 제안한다.

1. 호소력 있는 단체 형태들...

순리적인 해결안들이 속한 범주들은 창의적인 공동체들 내에서 행해진 사회혁신 사례로부터 일어난다. 그들은 가족이나 이웃 내 조직에서 일상 업무들의 자원 공유, 이웃과의 합동 조직, 상관적인 네트워크의 창조 등을 통해 보다 새롭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해결안들은 일상의 다른 영역에서도 충분히 유망하게 모사되고 적용될 수 있다.

As the picture grid above shows, the resulting scenario of Collaborative services developed in Europe is based upon a combination of three elements:

- the most promising cases of social innovation observed show similarities or recurring patterns in the way that the service is organised, beyond the particular sector in which it appears. Thus the forms of organisation can be clustered into categories. This classification is reproduced on the Y-axis of the grid.
- the scenario aims to convince users who are close to the creative communities although they may not have quite the same commitment and determination. Eight personas of potential users are presented on the X-axis of this grid.
- At the intersection of the various forms of organisation, on the one hand, and of the potential users, on the other, a sample of collaborative services suggests possible evolutions and adapta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ses that show potential and to make them more accessible.

1. Appealing Forms of Organisation...

Several categories of recurring solutions emerge from cases of social innovation within the creative communities. They represent different forms of organisation within a household, a family or a neighbourhood, such that daily tasks are carried out in a new and more sustainable way through daily practices, sharing resources, joint organisation with neighbours, creating

*Production activities based on local resources and skills;
healthy, natural forms of nutrition; self-managed services for
the care of children and the elderly; new forms of exchange;
alternative mobility systems to replace the monoculture of
individual cars; socialising initiatives to bring cities to life;
networks linking consumers directly with producers...*

relational networks... and, potentially, they can be replicated and applied in the different areas of one’s everyday life. Six forms of organisation were identified:

- Family-like services organised within a household by combining common family routines with the available household appliances;
- Community Housing based on particular housing infrastructure, which could allow for sharing domestic resources and mutual assistance;
- Extended Home whereby a share of household activities are outsourced to collective infrastructures in the vicinity;
- Elective Community in which members get organised and find synergies to help each other;
- Service Club open workshops where a group of passionate amateurs share their skills and equipment;
- Direct Access Network whereby groups of citizens arrange to buy directly from producers;

This classification is by no means exhaustive in terms of the wealth of social innovation and its potential with regards to moving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It was borne out of the diversity of initiatives observed during the research project in Europe and is limited to this particular sample collection.

프랑스와 제국
사회 혁신에서 협력까지

- 일상적인 가정 사무 처리와 보유된 세대 시설을 혼합하는 한 가정 내 가족 단위 서비스
- 가정 내 자원과 상호 협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특정 주택 설비 구조에 기반한 공동체 주거
- 가사 활동에서 배당된 몫을 근접한 공동 설비에 외주하는 확산형 가정
- 회원들이 조직되어 서로를 돕기 위한 시너지를 발견하는 선택적 공동체
- 열정 있는 동호인들이 여는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기술과 설비를 공유하는 서비스 클럽
- 생산자와 직거래를 위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네트워크

이 분류는 사회혁신의 부와 그 지속적 발전을 향한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고찰할 때 결코 완벽히 확립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유럽에서의 조사 프로젝트 중에 관찰된 발의안의 다양성에서 유래했으며 이 개별 표본의 수집에만 국한된 것이다.

2. Potential Adopters...

What is the target audience for these new services? What slice of the population is likely to use them? Collaborative services are targeted at categories of people who are convinced that consumerism patterns must be changed but who are still insufficiently keen to change spontaneously, people who are willing to take action in order to change their daily habits but who have yet to find how and where to go about it. Just like the pioneers of the creative communities who were at the source of the observed cases, they are driven both by interest in social investment and by a practical need, but, in both cases, their motivation takes on slightly different forms of expression. Interest in social investment is for them a practical matter more than a vector of identity. The result is what counts rather than the nature of the solution. They tend to be linked to a particular concern (i.e. urban mobility, healthy diets...) rather than to a global commitment. With regards to the practical need, these are categories of people who remain sensitive in economic terms, but they include also more affluent social groups. They will therefore make more composite choices, blending the aforementioned collaborative services with more traditional services. They will also be able to spend more for their personal comfort, towards obtaining easier access for example, as long as the surcharge is reasonable. The characters that were sketched to represent the population of potential adopters within the scenario building process point to various profiles in terms of age, gender, socio-professional standing and background that are likely to adopt and promote collaborative services.

2. 가능한 영입자들...

이 새로운 서비스의 대상 고객은 누구인가? 인구의 어떤 부분 집단이 그 서비스들을 이용하게 될 것인가? 협력 서비스는 소비의 경향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즉흥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열의를 갖기엔 아직 충분히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일상 습관을 바꾸려고 기꺼이 변화들을 실행에 옮기고 싶어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찾아야 하는 범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찰된 사례들의 원천에 있는 창의적 공동체의 선구자들이 그랬듯이, 그들은 사회적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관심사와 실용적 필요 모두에 의해 추동 되지만, 두 경우에서 그들의 동기는 약간 다른 표현 형태를 가진다. 사회적 투자에 대한 관심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개인 독자성의 반향 이상의 실용적인 문제이다. 해결안의 본질적인 성격보다는 결과 자체가 중요시된다. 그들은 범세계적 방침이라기보다 특정한 고려 대상(도심에서의 이동 수단, 건강한 식이 요법 등과 같은)에 결부되는 경향이 있다. 실용적인 필요성의 차원에서, 이들은 경제적 측면에 민감성을 보이는 사람들의 범주이지만, 또한 더욱 풍부한 사회 모임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앞에서 말한 협력 서비스를 좀더 관습적인 서비스와 뒤섞는 보다 합성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추가 요금 청구가 합리적인 범주 내에 있을 때까지는, 그 대상에 좀더 용이한 접근 가능성을 획득하게 해주는 개인적 편리성을 위해 더욱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델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영입자 인구를 대상화하기 위해 묘사된 인물들은, 협력 서비스를 영입하고 증진할 것처럼 여겨지는 다양한 범주의 연령, 성별, 사회-전문적 입장이나 배경을 짚어준다.

Finally, and most importantly, how can we preserve within these new collaborative services the social qualities that are the cement and also the greatest appeal of the initiatives upon which they are based.

This mediation procedure aims to preserve the winning characteristics of these promising solutions in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lst improving access to these solutions for a population that is aware but shows limited motivation, commitment and/or availability.

3. 정교한 해결책과 협력 서비스

관찰된 사회혁신 사례들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의 지속가능성의 발전이라는 측면과 더욱 잘 들어맞는 새로운 형태를 가진 조직들의 출현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는 어떻게 외골수로 격리되는 발의안을 넘어서, 일부 극단적인 카리스마적 자질을 가진 술선자들에 의해 앞장서는 것으로 여겨져 종종 하나의 특정한 상황에만 연결되고, 널리 접근 가능한 협력 서비스로 성립되는 지점에 닿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서비스가 보다 광범위한 유포를 통해 앞에 묘사한 것처럼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구상할 수 있을까? 최종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어떻게 우리는 이 새로운 협력 서비스 내에서, 완고할 뿐 아니라 그들이 기초한 발의안의 가장 훌륭한 매력이기도 한 ‘사회적 특성’을 보존할 수 있을까. 우리는 현재 전략적인 디자인 운영이 관찰된 해결안들을 재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중개 과정은 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전도 유망한 해결안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성격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으나 제한적인 동기, 의지, 그리고/혹은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는 인구에게 이 해결안들이 갖는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Elaborate Solutions and Collaborative Services

Cases of social innovation such as those that were observed could potentially lead to new forms of organisation in our everyday lives that are more in line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How can we get beyond the point of isolated initiatives, often linked to specific contexts and spearheaded by extremely charismatic pioneers, to a point where collaborative service are open and widely accessible? How can we envisage a greater diffusion of these services so that they reach a wider population such as the one described above? Finally, and most importantly, how can we preserve within these new collaborative services the social qualities that are the cement and also the greatest appeal of the initiatives upon which they are based. Our working hypothesis is that a strategic design operation could redefine the solutions that were observed. This mediation procedure aims to preserve the winning characteristics of these promising solutions in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lst improving access to these solutions for a population that is aware but shows limited motivation, commitment and/or availability.

II. 지속가능한 생활의 구상...

이제 실제 모델 안으로 들어가, 주시되는 인물들의 일상에 있어서 이러한 협력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예 1. 야르코



야르코 Jarkko

야르코는 28세이며 헬싱키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기술공업 학교를 졸업했지만 현재 적절한 직업을 찾지 못한 상태다. 그는 고정 수입이 없지만, 자족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한 이 생활 방식을 꽤 마음에 들어 하며, 그의 남은 시간과 고유의 기술을 투자하여 일상의 부대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해결안을 고안하는 데 소극적이지 않다.

Jarkko is 28 and is living on his own in Helsinki. He graduates from engineering schools but he has not found a proper job for the moment. He has no regular incomes but he quite like this sufficient way of living and he is not reluctant to invest some of his spare time and own skills to access cheap solutions.

II. Envisioning Sustainable Ways of Living...

Let’s now enter the scenario and give some example of how collaborative services could develop in the daily living of some of the focused characters.

Example 1. Jarkko

“...Hundreds of automobiles pass by on certain boulevards: at least one is going to the same destination as you are. The problem is, knowing which one! With E-Stop, one waits at an intersection and the device searches to see if there are any vehicles that can take you. If there are, you send a request signal. In the car, the driver receives the request on his or her device and can then pick you up. Drivers can also put out offers that are sent throughout their sector...

...This small communication device allows one to do urban hitch hiking: it is a system of peer-to-peer connection, that is to say it puts pedestrians directly in touch with drivers who are going to the same destinations. On screen there is a small map of the city, separated into zones which represent major sectors. One simply chooses a sector and launches the search. Every device within 150 meters of the location receives the signal. The system matches requests and offers, then proposes solutions. Pedestrians and drivers then confirm and signal each other by hand for the pick up. There is also a menu that manages each users accounts and personal settings, matching user profiles...

“수백 대의 자동차가 지나가는 특정 대로에서, 최소한 한 대는 당신의 목적지와 같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어느 차인가 하는 겁니다! 이스탑(E-Stop)을 가지고 교차로에 서 있으면, 당신을 데려다 줄 수 있는 차가 있는지를 이 장치가 검색해 줍니다. 만약에 있으면, 당신이 요청 신호를 보냅니다. 차 안의 운전자는 자신의 장치로 전송된 요청을 받고 당신을 태워줄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도 자신의 목적지 방향을 주변 지역에 전송해서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통신 장치는 도심에서의 히치하이킹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P2P 연결 체계, 즉 보행자들에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운전자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화면에는 주요 지점들을 대표하는 구역들로 나누어진 도시의 지도가 작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한 지점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150미터 반경에 위치한 모든 기계들이 신호를 받지요. 이 시스템은 신청과 제안을 서로 맞춰서 해결안을 내놓는 방식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는 수신호를 통해 편승을 확정하고 알려주게 됩니다. 사용자 프로필을 맞춰서 각 사용자 계정과 개인 설정을 관리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저는 좀더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서 고안된 이스탑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밴드음악을 방송하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참여시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 있을 때 전파를 타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곧 충분한 참여자들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라디오 방송을 듣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운전자와 차를 얻어 탄 사람은 방금 방송에 나왔던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I wanted to start an E-Stop that was geared more toward younger people...So we had the idea of involving a local radio station that broadcasts local bands. With the messages that were transmitted while people were in their vehicles we were quickly able to attain enough participants. What's fun is that most people are listening to the same radio station, so drivers and riders can talk about the groups that were just broadcast...

...It fills vehicles that otherwise circulate almost empty. The more vehicles that participate, the more efficient it is: for the first time, traffic actually facilitates mobility on foot! There are also enough participants so that one can choose whom to ride with. Many women, for example, prefer to ride with other women. This option builds confidence in the begi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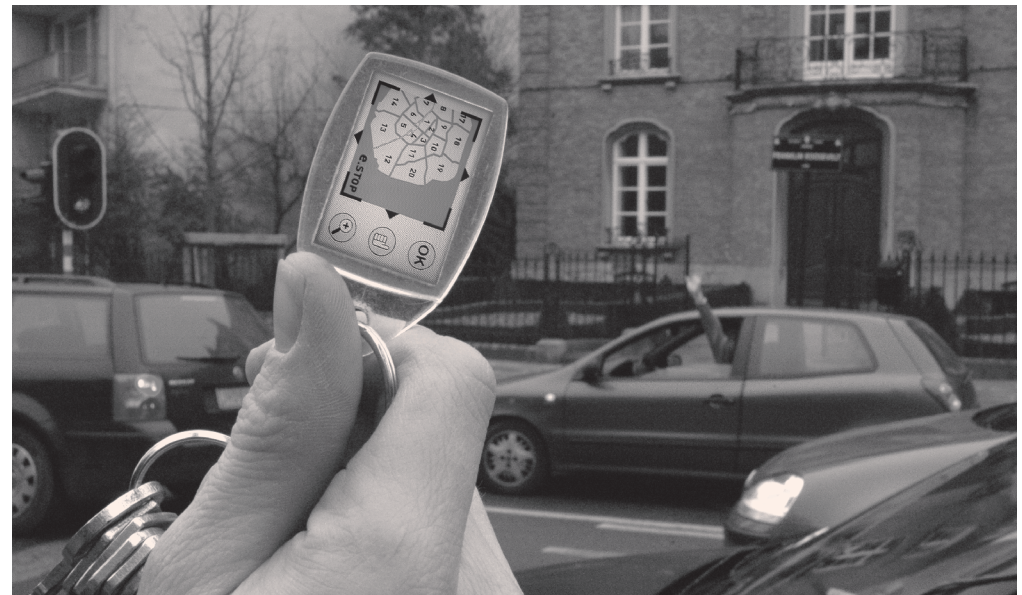
“...Cooking for myself in my student's studio was fine, but not going to the laundromat to do my laundry... I prefer the **Home Laundry** system with the Mauritz family in my own building...

...The solution lies with a family who already is in possession of domestic appliances, like a washing machine, an area to hang or dry clothes and space for ironing...and to use them to provide services to their neighbors...

...이 방식을 통해 거의 빈 차로 돌아다녔을 차들이 이용자들을 태우고 다니게 됩니다. 더 많은 차들이 참여할수록 효율성은 높아지고요. 최초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 실제로 걸어 다니는 것을 장려하게 되는 셈이죠! 참여자들의 수가 많기에 사용자들은 누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갈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과 함께 타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선택의 여지는 초기에 신뢰성을 쌓아 줍니다.”

“자취방에서 저 자신이 먹을 요리를 하는 것은 괜찮았지만, 저 자신의 세탁물을 맡기려고 세탁소에 가는 것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건물에 사는 모리츠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 세탁소 방식을 좋아합니다...

...세탁기 같은 가전 설비나, 옷을 걸고 말릴 공간, 다림질을 하는 장소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웃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가족에게 해결안을 제공합니다.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 ‘가정 세탁소’에 등록하면 세 개의 옷 커버를 받게 되는데, 이들은 오염된 세탁물을 운반하는 데 쓰였다가 세탁을 마친 후 깨끗하고 다림질된 옷들을 보호하기 위해 뒤집힌 상태로 씌워집니다. 그 커버들은 옷을 세탁하는 데도 쓰이고, 이름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잃어버리거나 뒤섞이지 않도록 사용되죠. 세탁료 지불 방식은 시청에서 발행한 전표로 이루어집니다...



...One subscribes to the Home Laundry closest to one's home and receives 3 cloth sacks which are used to transport dirty laundry, then turned inside-out in order to protect the clean and ironed clothes. They are also used to wash the clothes and are marked so that nothing gets lost or mixed up. Payments are made with tickets that are bought at the Town Hall...

...It's like a professional cleaner: but a family does it...I don't pay much attention to clothes, so it's also a bit like having a mother who can replace a button. Mrs. Mauritz will sew one back on and if one of my shirts is too worn out, she'll send me out to buy another one!...

...전문 세탁소와 똑같지만, 일반 가정에서 한다는 점만 다르지요. 저는 옷가지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서, 단추를 달아 줄 수 있는 어머니 한 분이 계신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모리츠 부인은 단추가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달아주시고 만약 내 셔츠 중 하나가 너무 낡았다 싶으면 하나 사 입으라고 밖으로 떠밀어 내보내시거든요!...

가정 세탁소는 대체로 아이가 하나 혹은 둘인 가족, 모든 세탁 장비를 갖추었지만 일주일에 3-4번의 세탁물밖에 돌리지 않는 가족에게 잘 해당됩니다. 한 3-4명 정도의 독신 사람들을 위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공간이 있다면 더 해 줄 수도 있겠죠. 세탁기를 놓을 만한 공간이 없거나 딱히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노인층, 혹은 젊은 커플에게는 물론 매우 실용적입니다.”



...The Home Laundry is often with a family that has only one or two children, who has all the equipment but may only do 3 to 4 loads of laundry per week. It provides laundry service for three or four single people, more if there is space. It’s certainly practical for students, the elderly or young couples that don’t have the space or need for washing machines...”



엘레나 Helena

엘레나는 까를로따와 미겔의 어머니다.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재단 작업실을 운영한다. 언제나 그들의 사업 활동을 재 구상하고 두 십대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그녀의 일상은 꽤 바쁜 편이다.

Helena is the mother of Carlotta and Miguel. With her husband, they have a small tailor atelier in Saragossa in Spain. Her life is pretty busy always reinventing their business activities and running behind their two teenagers.

Example 2. Helena

“...I am a clothing designer and tailor with a small atelier. To help pay for my investment I decided to open the atelier to others who wanted to sew, or learn to sew; so I started what I called a **Second Hand Fashion Atelier**...

...The structure offers access to a professional tailoring facility for the adjustment, repair or transformation of second hand clothing...

...As a tailor I was getting less orders for “custom made” clothes and decreasing demands for adjustments. I was just too expensive for the average person who still wanted to transform their clothing...so I proposed that they learn to do it themselves! At first they came from time to time, but demand grew so I had to organize: the atelier is open every evening and weekends. We are now three tailors who rotate shifts between our own work, supervising and teaching...

...There are different formulas for participation: renting the space and machine use by the hour; advising and supervising with a specific project and, of course, all of the custom full services we usually provide. We also give courses for groups. Each week there is even a “clothing exchange” session where people swap their used clothes...

예 2. 엘레나

“저는 작은 작업실을 가진 의상 디자이너고 재단사입니다. 제 투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저는 재봉을 하고 싶어하거나 배우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작업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중고 패션 작업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계는 중고 의류의 조정, 수선, 혹은 리폼을 위해서 전문적 재봉 설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단사로서 저는 “개인 맞춤” 의복의 주문을 받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의류 수선을 해달라는 수요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옷을 리폼해서 입고 싶어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제 단가는 너무 높은 편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스스로 배워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띄엄띄엄 찾아왔지만, 수요가 점점 많아져서 저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작업실은 매일 저녁 시간대와 주말에 열려 있지요. 지금은 저를 포함한 세 명의 재단사가 자신의 일을 하는 사이에 교대로 돌면서 감독과 교육을 맡습니다...

...참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시간에 공간과 기계 사용을 대여하는 것, 특정한 프로젝트를 두고 조언과 감독을 해 주는 것, 그리고 물론 우리가 보통 제공하는, 맞춤복 전반의 서비스지요. 우리는 또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주 모인 사람들이 중고 옷을 서로 바꾸어 가는 “의복 교환” 세션도 있습니다...

...옷 한 벌을 다시 몸에 맞추어 입고 거기 따르는 가격을 계산해 보고자 하는 기본적인 수요뿐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옷을 얼마나 멋지게 변형시킬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개인적인 관심 보이기를 즐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려 차원에서, 2년에 한 번 우리는 바로 이 작업실에서 변모를 거친 개인적 스타일링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는 패션쇼를 엽니다...

...옷을 수선하고, 다시 되살리고, 변형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새 옷을 사야 할 필요성을 낮추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가운데 상호 원조의 체계도 만들어 내게 되지요. 중고 의류를 변형하는 것은 맞춤옷에 대한 사람들의 개인적 관심을 되살려 줍니다. 단순히 사게 되는 기성복과는 다르지요. 모두에게 맞도록 만들어졌지만, 아무에게도 개성을 부여하지 않잖아요....”

...Besides the basic need to refit a piece of clothing and calculating what the cost is, we found that people enjoyed taking a personal interest in the possibilities of transforming their clothing themselves. As a promotion, twice a year we now organize a fashion show of personal styles transformed right here in the atelier!...
...Through repairing, recuperating and transforming clothing we reduce the need for purchasing new clothes. We also create a system of mutual aide: people help each other. Transforming used clothing renews peoples personal interest in custom clothes, as opposed to simply buying prêt-à-porter - made to fit everyone, but personal to no one...”

“...I like to prepare meals... and also to eat! But I have to be careful not to put on too much weight, because of my heart, and since I don't have a lot of time to shop for myself, due of my work, I use **Country Meal Subscription**...

...The system is based upon a subscription for the weekly delivery of cooking ingredients, products and organic foods, specially chosen by a dietician...

...Following a special diet is not easy, especially when the entire family doesn't need it. When we go shopping, sometimes we are tempted away from it... so with Country Meal Subscription we don't feel like we are actually following a specific diet: we receive fresh ingredients and recipes which, we know, are all healthy and approved for the diet we are following...



“저는 식사 준비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먹는 것도요! 하지만 제 심장 때문에 몸무게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제 자신을 위해 쇼핑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전원식단 예약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영양학사가 주의 깊게 선정한 요리 재료, 생산물, 그리고 유기농 음식들이 예약 구매되어 매주 배달되는 시스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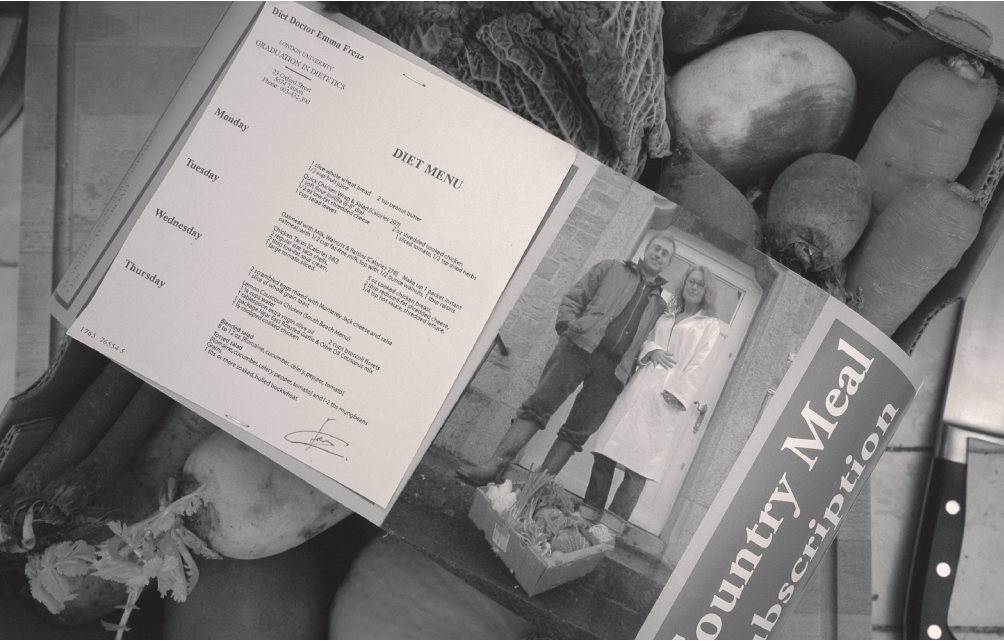
...특별한 식이요법을 고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가족 전원이 그 식이요법에 따를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더 그렇지요. 쇼핑을 하러 가면, 때때로 그런 식이요법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받기도 하죠. 그래서 전원식단 예약을 이용하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특정 식이요법에 고착하고 있다는 부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단지 건강이 넘치고 현재 우리의 식단에 적합하다고 알고 있는 신선한 재료와 요리법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이 예약 시스템에 가입했을 때 저는 이 재료들이 생산되는 농장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여기서 25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한 부부가 시작한 곳인데 남편은 원래부터 농부였고, 그가 과일과 채소를 키우고 다른 생산물도 주문합니다. 한편 그 부인은 영양학사입니다. 저는 그녀와 제 식이요법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제 요리 취향이나 즐거움도 얘기하죠. 그럼 그녀가 균형 잡힌 요리법을 짜줍니다...

...When I first joined I went to visit the farm where the products came from. It's about 25 kilometers from here. A couple started it: he'd always been a farmer. He grows fruits and vegetable and also orders other products. She's a dietician by trade. I discussed my diet needs with her, but also my tastes and the pleasure I get from cooking... She personalizes the recipes...

...In the supermarket world of infinite choice, Country Meal Subscription might seem an anomaly. In fact it's more like asking the advice of a chef at a restaurant: we consult someone to whom we give trust to choose for us. It is a distribution system which puts specific, healthy, organic foods into our hands with very little waste right up to the casserole...

...무한한 선택지가 있는 슈퍼마켓의 세계에서, 전원식단 예약은 좀 이상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레스토랑의 요리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먹을 무언가를 선택해달라고 할 만큼 신뢰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특성이 있고 건강이 넘치는 유기농 음식들을 우리의 손에 가져다 주고, 낭비하는 부분이 거의 없이, 곧바로 끓는 냄비 속으로 직행하게 만들어 주는 배달 시스템입니다.”



예 3. 조셉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책을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유일한 조건은 나중에 책을 돌려 받기 위해 일일이 사람들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저는 이웃집 도서관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의 원칙은, 일반 사람들의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책들을 전문적인 도서관 구조와 함께 제시 하는 형태의 확립에 입각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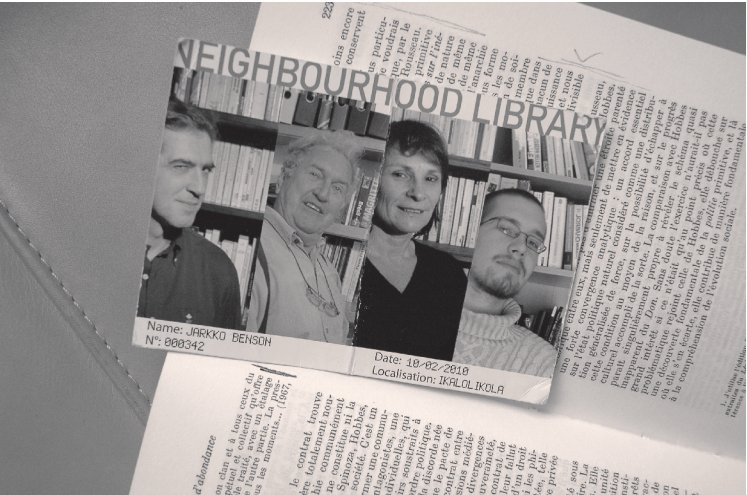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책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대여 체계를 갖추는 것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지역 도서관 등에서 쓰는 관리 소프트웨어를 조사해서 저의 이웃집 도서관이 실용적 이고, 높은 설득력을 갖고 또 쉽게 관리되도록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아주 미세하게 수정되었습니 다. 온라인 장서 목록에 나오는 ‘책 서가의 위치’ 부분을 ‘책 주인의 주소’로 바꿨던 것이죠. 그 이후 해야 할 것은 모든 장서 목록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회원 카드를 출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로운 회원 각자는 그들이 빌려 주기로 동의한 책들을 이웃집 도서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장서 목록에 등재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이것은 고전적인 도서관처럼 기능하죠. 책을 검색하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 대여 여부와 어디에서 책을 습득할 수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3주 안에 책은 반납되어 야 합니다. 만약 잊는 것에 대비해서 독촉장도 있고 심지어 연체료도 있습니다...

조셉 Joseph

조셉은 75세이고 프랑스 릴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 그의 아내인 마르틴은 그가 은퇴하기 직전에 사망했다. 그는 그의 주변 이웃들과 다시 교류하고 상호 교환과 원조에 기반을 둔 해결안을 개발하는 데 여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이 충격으로부터 천천히 회복하는 중이다.

Joseph is 75 and living alone in a small apartment in the neighbourhood of Lille in France. His wife Martine died just before he retired. He recovers slowly from this shock by investing his spare time in reconnecting with his neighbours around, developing solutions bases on exchange and mutual help.



Example 3. Joseph

“...I love books. I am OK with lending them out, but with the sole condition that I don’t have to run after people to get them back...So to avoid problems I developed a Neighborhood Library...

...The principle is based on the formation of a library from books that are found in people’s homes, with the structure of a professional library...

...People generally are attached to their books and putting a borrowing system in place is a sensitive subject...So I researched management software for small, local libraries so that my Neighborhood Library would be viable, convincing and easily managed. We modified the software very little: we switched the line ‘Book Shelf Location’ in the on line catalogue, to ‘Book Owner Address.’ After that all we needed to do was put everything on line and print membership cards...
...Each new member must register the books they agree to lend out in the catalogue accessible on the Neighborhood Library web site. As such, this functions like a classic library: we search for a book, find out who has it, if it is checked out or not and where we can go to pick it up...We must return it in 3 weeks. There are reminders and even fees if we forget...

...It is not just a way to make books available, but also a means to discussion. Owners are the best advisers. They keep a book if they like it. They talk to you about it and will suggest others, or you to them. And the books pass from hand to hand but always through the same reliable system of borrowing...

“만약 다리 건강이 안 좋다면 쇼핑을 하러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살다 보면 이런 부탁을 건네 받을 만큼 한가하게 창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자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액티브 쇼핑 목록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을 위해 쇼핑을 대신해 줄 이웃에게 물어본다는 기본적인 행동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전자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의 쇼핑 목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한 가게 안에 있을 때, 단순히 액티브 쇼핑 리스트에 접속해서 신청 목록을 받는 것입니다. ‘빵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와트가 낮은 전구가 필요해요.’ ‘이러이러한 가게에 누군가 갈 거라면, 무엇 무엇 좀 사줄래요?’ 저처럼 쉽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니는 사람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더 먼 거리의 가게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We place value on the books that lie dormant on people’s shelves, but normally dare not ask them to separate themselves from them. Contrary to book exchange pools, where you mostly find cheap or popular literature, Neighborhood Library gives people access to the best collections. The quality of exchanges between people is enriched as a consequence...”

“...If we have bad legs it is difficult for us to go shopping...and living in an apartment one doesn’t often see people passing in front of one’s window in order to ask them a favour...so I use the **Active Shopping List**...”

...The system is inspired by the basic act of asking a neighbor who is going shopping to pick up something for you: through an electronic message system we have access to people’s shopping lists...

...When we are in a particular shop we simply contact the Active Shopping List to receive a list of requests: ‘Could you pick me up some bread?’; ‘I need a low-wattage light bulb’; ‘If someone is going to such-and-such a store, could you...?’ ...It could be in the area, for people like me who cannot get around easily, or from a more distant shop, to reduce the number of people going...

...정보 시스템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중앙 정보 기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신청을 올리거나 혹은 그들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쇼핑 목록들은 개인의 위치와 집주소에 따라 범주화됩니다. 하지만 긴급 사항이나, 제품의 비슷한 종류 혹은 양에 따라 분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밖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기만 하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고무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자유로 거의 무상의 금액이 돌아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데 망설이지 않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사회적 교류에 직접적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는 시스템입니다. 부탁은 명확히 전달되고 지불액은 돌려받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밝혀내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주된 이득은 도심 내 통행의 효용을 최대로 극대화하여 경제적인 이동성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저처럼 잘 움직이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든 사람들을 위한 보살핌을 촉진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퇴근할 때 집에 있는 노인들에게 무엇인가를 대신 사다 줄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은퇴 후 여가가 많은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쇼핑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The information system is based on a central data base through text messages. Users either post requests or let someone know they can meet one. Shopping lists are categorized by both the location of individuals and by their home addresses; but they can also be classified by urgency, similar types of products or even by quantity, if someone were to be on foot...

...Basically what motivates people is to freely offer a service to someone that really costs us almost nothing. What helps people to not hesitate in helping is the system which puts them directly in social contact: the favor is clearly communicated and the payment is rendered. There is also a system to record and track the reliable people...

...The interest is to economize movement within the city by maximizing the use of trips. It is also a way to facilitate the care for those who are not as mobile, either handicapped or aged like me... Everyone uses it: those who are very busy might very well bring something home to someone older, or someone who is retired and has extra time will shop for someone who doesn’t...


협력 서비스, 그리고 2차적 사회 교류 조직의 강화

협력 서비스 모델 내에서 야르코, 엘레나, 그리고 조셉이 위에 묘사한 여섯 개의 ‘일상의 단면’들은 사회혁신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렵פות한 인상을 제공한다. 그것들은 부담스럽고 거창하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며, 해결안들의 표본은 물론 협력 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단지 부분적인 비전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롭게 출현하는 사회적 풍경의 개괄적인 상을 보여주고, 보다 통합적이고 범세계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으로 인도해 준다.

협력 서비스 모델은 관계 조직을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는 사회적 관계 양식을 배열하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친구와 가족을 포함한 가계의 ‘공식’ 관계 조직을 넘어선 이 관계 짜임새는, 우리의 도시화되고 개인화된 사회에서 낡고 닳아버린 ‘비공식’ 관계 조직까지 품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에 활발하지 못하게 죽어 있던 관계의 더 큰 범위가, ‘확장형 가족,’ ‘지역 공익,’ ‘이웃의 삶,’ ‘이웃 관계,’ ‘동호인 클럽,’ 심지어 근소하게나마 ‘헌신적인 봉사 제공자들’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재가동될 수 있다. 그 결과, 다양한 해결안들이 개별적 기능성을 넘어서서 하나로 단단히 묶여 역량을 발휘하는 2차적 사회 교류 조직이 생겨나는 것이다. 

Collaborative Services and Strengthening The Secondary Social Fabric...

The six ‘bits-of-life’ of Jarkko, Helena and Joseph described above within the scenario of Collaborative Services offer just a glimpse of what social innovation can bring. They do not claim to be exhaustive, and the sample of solutions certainly only represent a partial vision of the possibilities of collaborative services. Nevertheless, they provide an overview of an emerging social landscape and leads to a more coherent global understanding.

The scenario of Collaborative Services triggers patterns of social relations that have a tendency to (re)generate the relational fabric beyond the ‘formal’ relational fabric of the household, which includes friends and family, to encompass the ‘informal’ relational fabric, which is all but worn out in our urban and individualistic society. Thus wider relational circles, which were largely inactive, can once again operate, such as the ‘extended family’, ‘local common goods’, ‘neighbourhood life’, ‘neighbour relations’, ‘amateur clubs’ and even remote ‘dedicated providers’. As a result, we have a secondary social fabric, which binds together the various solutions beyond their own specific functionality. 

Bibliographie

- DOT707, Design of the time 2007, www.dott07.com
- Jégou, F., Thoresen, V. and Manzini, 2009. E. LOLA Looking for Likely Alternatives. A didactic process for approaching sustainability by investigating social innovation, Hedmark University College, Hamar, Norway.
- Jégou, F. and Manzini, E., 2008. Collaborative Services, Social Innovation and Design for Sustainability with essay by Bala, P., Cagnin, C., Cipolla, C., Green, J., van der Horst, T., de Leeuw, B., Luiten, H. Marras, I., Meroni, A., Rocchi, S., Strandbakken, P., Stø, E., Thakara, J., Un, S., Vadovics, E. Warnke, P. and Zacarias A. Edizioni Poli.design, Milan.
- Jégou F., Liberman J., Girardi S. and Bernagozzi A., 2008. Design for Social Innovation, Enabling replication of promising initiatives for sustainable living in Brussels and Paris. Changing the Change design research conférence, Torino.
- Jégou, F., Liberman, J. and Girardi, S. 2008. Design for Social Innovation, Enabling replication of shared mobility initiatives in Brussels, proceedings of the 2nd Conference of the Sustainable Consumption Research Exchange (SCORE!) Network, Brussels 10-11 March 2008.
- Manzini, E. Jégou F., 2003. Sustainable Everyday, Scenarios of urban life. Edizione Ambiente, Milan.
- Meroni A., 2007. Creative communities, People inventing sustainable ways of living. with essay by Bala, P., Ciuccarelli, P., Collina, L., de Leeuw, B., Jégou, F., Luiten, H., Manzini, E., Marras, I., Meroni, A., Strandbakken, P., Stø, E., S., Vadovics. Edited by Polidesign, Milan.
- Penin L., Jégou F. and Girardi S., 2008. Creative Communities for Sustainable Lifestyles, Visions of sustainable ways of living in Brazil, India, China and Europe. Changing the Change design research conférence, Torino,.
- SEP(2008), Sustainable Everyday Project, <http://www.sustainable-everyday.net/cases>.
- Thackara, J. (2005), In the bubble, Designing in a complex world, The MIT Press, London, UK
- Young Foundation (2006), Social Silicon Valleys. A Manifesto for Social Innovation, <http://www.discoversocialinnovation.org>